

두배 더 나온 1월치 전기요금...소상공인들 “그저 한숨만”

공공요금 가파르게 올라...소상공인 타격
PC방·복싱장 전기료 타격...음식점·카페도
“소득 낮은 자영업자 사회적 배려 있어야”

서울 동대문구 상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이모(55)씨는 1월 사용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지난해엔 평균 30만~40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료가 78만원으로 올랐다”며 “거의 2배가 났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이겨내고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또 힘이 빠진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복싱장을 운영하는 서모(38)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는 “이달 전기료가 80만원 가까이 나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고지서를 보니 전기료가 오른 걸 새삼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월 사용 공공요금 고지서가 각 사업장에 속속 배달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1월치 전기·가스 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2배가량 올랐다

고 입을 모았다. 서울 구로구에서 곱창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황모(70)씨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0%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황씨는 “지난 달보다 8만8000원 오른 42만원을 납부했다”며 “나가는 돈은 비슷하네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 부담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0)씨도 요금이 확 오른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료가 이번달에는 40만원으로 올랐다”며 “물가가 다 올랐으니 저희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건 알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제자리인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이뤄

져야 한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업장 운영 시 10명 중 9명(99.0%)이 난방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꼈다. ‘매우 부담된다’고 언급한 응답자는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51.7%는 가장 필요한 난방비 정책으로 ‘난방비 요금 할인’을 꼽았다.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의 법제화 마련’(9.8%)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통해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지역도 일부에 그쳤다. 가평군과 가평군 의회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6555명을 대상으로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아마 업종마다 다를 테지만 PC방이나, 무인편의점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전기료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타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를 대기업과 똑같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부담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

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가스·전기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분할 납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최이슬기자

“AI가 미세먼지 알아서 제거”...삼성, ‘블루스카이 5500’ 출시

실내외 공기질 학습해 10분마다 센서 작동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이 강화된 2023년형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5500’을 오는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맞춤형정 AI+’ 기능이 새롭게 적용돼 오염도가 높아지기 전 미리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킨다.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학습해 비교하고 10분마다 센서가 작동해 공기질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맞춤형정 AI+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AI+ 인증’을 취득해 성능을 인정받았다. 기기를 제품 연결 솔루션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자동화 설정도 가능하며, 외출 시나 취침시간 등 사용자 생활패턴에 맞춰 공기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블루스카이 5500은 극세필터와 숏 탈취필터, 미세먼지 집진필터로 이루어진 3단계의 정정 시스템이 적용돼 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해주며 각종 생활악취와 유해가스도 제거해준다. 이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로 블루스카이 5000을 30m³시험 챔버 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강풍으로 60분 간 작동 시 시간 경과에 따른 분진감소율을 측정할 것이다. 색상은 캔버스 그레이, 산토리니 베이지, 샵페인 베이지, 세이지 그린 등 총 4종이며 출고가는 54만9000원이다. 김재환기자

아이오닉 5, 獨 자동차 전문지 전기차 비교평가서 1위 올라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오닉 5는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Auto bild)’가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 비교 평가에서 바다·파워트레인·친환경성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568점을 받은 스코다 엔야크 RS를 제치고 570점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가 아우토 빌트 중중형부문 ‘2022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된 스코다 엔야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3·4위를 차지한 벤츠 EQB, MB 마블 R과는 각각 19점, 40점이라는 큰 점수로 앞서며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실내 공간, 다용도성 등을 평가하는 바다 항목에서 96점을, 파워트레인 항목에선 95점을 받았다. 또 환경기술, 소음 등을 평가하는 친환경성 항목에서도 스코다 엔야크 RS와 함께 72점을 받아 동점을 기록했다. 아이오닉 5는 지난해 4월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SUV’에 전기차 최초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바다·파워트레인·친환경성 3개 항목서 1위 차지
스코다 엔야크 RS·벤츠 EQB 등 경쟁 모델 제쳐



차’, ‘아우토 빌트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 등을 잇따라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호

평을 받았다. 서선욱기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삼성카드 출시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은 연 최대 12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제휴 카드’ ‘트레이더스 클럽 삼성카드’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휴카드는 트레이더스 유료 멤버십인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 전용 카드, 트레이더스 구매 금액의 최대 5%까지 ‘TR 캐시’를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TR 캐시’는 트레이더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멤버십 갱신 시점에 고객에게 지급된다.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 전용 카드, 트레이더스 구매 금액의 최대 5%까지 ‘TR 캐시’를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TR 캐시’는 트레이더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멤버십 갱신 시점에 고객에게 지급된다.

연 최대 120만원 적립
멤버십 등급 별로 스탠다드 회원은 연회비 3만원, 프리미엄 회원은 연회비 7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TR 캐시’를 스탠다드 회원 1%, 프리미엄 회원 2% 적립(적립한도 각 50만·100만원) 해준다. 여기에 트레이더스 클럽 삼성카드를 사용하면, 전용 이용 금액에 따라 트레이더스 결제 금액의 최대 5%까지 ‘TR 캐시’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100만원 이상 실적 시 5%, 전용 50만원 이상 실적 시 3%, 전용 50만원 미만 실적 시 1%가 차등 적용된다. 대중교통,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영화 등 생활 편의 영역 전반에서 전용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의 ‘TR 캐시’를 별도 없이 적립할 수 있다. 전용 50만원 이상 실적 시 2%, 전용 50만원 미만 실적 시 1%가 적용된다. 뉴시스

고물가에 ‘집밥’ 수요 증가... “조미식품 성장”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외식 대신 집밥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제1차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0%, 2022년 1월 대비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식 물가는 7.7% 상승하며 지난해 6월(8.0%)부터 8개월째 외환위기 당시 수준(1998년 11월 7.4%)을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2021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감소폭 자체는 2019년(-3.0%) 정점을 찍은 후 3년째 둔화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부상한 집밥 트렌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의해 지속되며 집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특히 ‘요양(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편하고 맛있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인기를 끌며, 조미식품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올바른 간편 양념’의 올 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식 물가 부담에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을 선호하는 ‘홈룩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푸드 측은 분석했다. 또 ‘홈베이킹’, ‘홈’ 등 다양한 내식 문화가 자리 잡으며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도가 높은 간편 양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인기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라식품은 소비자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만능소스로 인기를 얻고 있는 참치액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라식품의 주요 제품인 참치액은 국물 요리의 간을 맞출 때 다른 조미료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고, 육수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해 육수를 우려내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국물 요리 뿐 아니라 다양한 무침 요리에도 감칠맛을 더해준다. 한라식품은 집밥 트렌드와 함께 요리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착안, 계량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자들을 위한 스틱형 제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해 일러스트레이터 송혁(nakedkingko) 작가와 협업, MZ세대의 감성을 담은 리뉴얼 스틱 패키지도 출시했다. 팔도는 지난 1월 팔도비빔장 누적 판매량이 2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파우치 형태의 만능 비빔장을 선보인 이후 6년 만의 성과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에 따른 해외 여행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진 것은 물론, 집밥 선호 문화와 자신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선욱기자